

#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군집에 따른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등의 융합적 차이

이현주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Convergence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tc. by resilience clusters of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records

Hyun-Ju Le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in Jungw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 대상 회복탄력성의 군집별로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및 일반적 특성의 융합적 차이를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168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복탄력성의 3가지 세부 영역에 따라 군집 분석한 결과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1은 세 영역 모두 한국인 평균 이상인 보통수준의 집단이었고, 군집2는 세 영역 모두 한국인 평균보다 낮은 군이었다. 군집1은 진로준비행동, 취미 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 외향적 성격, 성적 상, 대학생활 만족, 전공 만족한 비율이 군집2보다 높았고, 학업소진은 더 낮아 군집 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군집2에 속하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긍정성 강화 교육을 통해 전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융합,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의무기록,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onvergence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each cluster of resilience, and draw a proper improvement plan.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had been conducted and a total of 168 copies were analyzed. As a result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ree detailed categories of resilience and was classified into two clusters. Cluster1 was a group that had points higher than the average points of Korean in each one of three categories. Cluster2 had all of which were lower points than that. Cluster1 had higher points than cluster2 in term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bby, subjectively good health condition, extroverted personality, good academic record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study satisfaction ratio, but had lower points than cluster2 in terms of academic burnout. Therefore, positiveness enhancement education focused on cluster2 will improve total group resilience.

• **Key Words** : Convergence, Resilience,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cal records, University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이현주(hyun525h@jwu.ac.kr)

Received February 7, 2017

Revised March 28, 2017

Accepted April 20, 2017

Published April 28,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대학생들 또한 입학 시점부터 이미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학업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학업부담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에 따른 근로활동 및 좁아진 취업 문턱으로 인해 정규 학업 외에도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는 별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소진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1,2] 최근 들어 학생들에 대한 학업소진이 대두되고 있다. 학업소진이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스트레스,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로 [3], 의대생같이 학습량이 많은 학생들에게서 학업소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성적이 상위 몇 % 이내에 들어야만 의료기관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등 학우들 간에 학업경쟁이 보다 치열해 지고 있고 이와 함께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학업소진 및 진로준비행동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5]. 이렇듯 대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준비 부담으로 인해 좌절, 무능력감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므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선행연구결과에서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 정서적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진로준비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6,7,8,9,10,11]. 학업소진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었고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12]. 그 외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남성은 취미가 있는 경우, 최근 1주일간 운동을 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인 경우, 성격이 외향적인 경우, 성격이 좋은 편인 경우, 대학생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직무만족도, 직무성고가 높은 경우에 양의 상관성이, 직무소진과는 음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13,14,15,16,17,18,19,20].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듯이 노력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클수록 역경을 이겨나가는 힘이 커진다고 하였으므로[5]

특정 집단별 회복탄력성 연구를 통하여 해당 집단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관련분야에서 보다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의무기록 전공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관련 학과 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무기록을 전공하는 학과에서는 의무기록학, 질병 및 수술분류, 병원통계, 압등록, 의학용어, 해부학, 생리학, 전산학, 의료정보관리학, 의료보험 등 국가지정 과목을 총 40학점 이상 개설한 다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시험 응시가능 학과임을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전공하는 학생들 또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의무기록사 국가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의 사전준비가 많이 소요된다.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취득자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에 5,022명, 보건분야 연구소 및 국가기관에 737명 등 보건관련 분야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보건정보관리협회에서도 전자 의무기록시스템에 부응하여 의료정보관리 전문가로서 전망을 밝게 평가하고 있다[22]. 의무기록사 배출학과의 경우에는 2004년 당시 4년제 대학교 10개, 전문대 26개로 총 36개 학교가 운영되었는데, 범국가적으로 대학생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는 최근 교육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2014년 5월 기준 4년제 대학교 38개, 전문대 75개의 총 11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10년 전보다 무려 213.9%의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5,6]. 국가면허 취득자수 또한 2004년 880명에서 2014년 1,9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21,22]. 이와 같이 학생들이 집중되면서 공급증가로 인해 의무기록 전공학생들의 취업경쟁이 점차 더 치열해지고 있어 과거에는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준비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의무기록사 뿐 아니라 병원행정사, 병원코디네이터, 전산회계, 의료정보관리사 등 보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무기록 전공대학생들은 학업소진 및 진로준비행동 부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련연구는 병원종사자, 간호사, 객실승무원, 판매원 등 직장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간호 대학생, 비서학과 학생, 사회복지전공대학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의무기록 전공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연계하여 학업소진이나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 의무기록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에 따라 군집을 분류한 다음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및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타 변수에 대한 회복탄력성 군집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무기록 전공대학생들을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에 따라 군집을 분류한 다음 군집별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의무기록 전공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및 진로준비행동 현황을 파악한다.
- 2)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별 특성에 따라 군집을 분류하고 군집별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및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권 소재 4년제 대학 2개 학교의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재학생 21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2주간 설문을 실시하여 177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회복탄력성에 대한 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빠져서 분석이 제한되는 9건을 제외하고 최종 168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0.10을 이용하였고 군집별 t-test를 위해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alpha=0.05$ , 검정력 80%를 확보했을 때 총 144명이 산출되었다. 중간 탈락자를 고려하여 10%를 가산한 159명이 필요한 표본수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 168명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Table 1>과 같다.

#### 2.2.1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별, 취미, 주관적 건강상태, 성격, 성적, 운동여부,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및 인구통계학적 기본변수인 학년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로, 학년은 1, 2, 3, 4학년으로 구분하였다. 취미는 취미여부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 보통, 나쁜 편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성격은 내성적, 중간, 외향적의 3가지로, 성적은 상, 중, 하의 3가지로 각각 분류하였다. 운동여부는 최근 1주일 동안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있는 지에 대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 및 전공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Research method details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tails	-sex -grade -hobby -subjective health condition -personality -academic records -exercise -school life satisfaction -study satisfaction	-self-control ability ·emotional control ·impulse control ·causal analys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mmunication ·sympathy ·self-expansion -positiveness ·self-optimism ·life satisfaction ·thankfulness	-emotional exhaustion -incompetency -cynicism	-
score	-	·Mean(full mark 5) ·total score(full mark 265)	·Mean(full mark 5)	·Mean(full mark 5)

### 2.2.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Kim[5]이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완성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인 KRQ-53의 53문항을 채택하였다. 응답은 긍정적인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5점 척도, 총점이 265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KRQ-53의 총 53문항은 ‘자기조절능력’ 1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및 ‘긍정성’ 17문항의 3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문항 당 5점 척도, 총 18문항으로 총점이 9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균은 총점을 해당 항목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영역을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의 3가지 세세부 영역으로 다시 나누었다. 감정조절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며, 충동통제력은 기분에 휩쓸리는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며, 원인분석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5].

#### 나.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문항 당 5점 척도, 총 18문항으로 총점이 9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균은 총점을 해당 항목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영역을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의 3가지 세세부 영역으로 다시 나누었다. 소통능력은 상대의 호감을 끄는 대화 기술으로써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며 자아확장력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5].

#### 다. 긍정성

긍정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긍정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문항 당 5점 척도, 총 17문항으로 총점이 85점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평균은 총점을 해당 항목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 영역을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3가지 세부 영역으로 다시 나누었다. 자아낙관성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며, 생활만족도는 행복의 기본 수준인 삶에 대한 만족도이며, 감사하기는 삶과 주변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이다[5]. 같은 회복탄력성 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9, 0.87[12,2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1이었다. 세부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조절능력 0.76, 대인관계능력 0.82 긍정성 0.87로 확인되었다.

### 2.2.3 학업소진

학업소진이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이다[3]. 학업소진에 대한 설문문항은 Lee etc.[4]가 사용한 14문항을 채택하였다. 세부 영역으로는 정서적 고갈 5문항, 무능력감 5문항, 냉소성 4문항으로 문항 당 5점 척도,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총점을 해당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학업소진 점수를 산출하였다. 학업소진이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세부 영역별로 정서적 고갈 0.84, 무능력감 0.77, 냉소성 0.84였으며 총 학업소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총 학업소진은 0.85였고 세부 영역별로는 정서적 고갈 0.79, 무능력감 0.83, 냉소성 0.83으로 확인되었다.

### 2.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진로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및 결정된 진로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25].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문문항은 Lee etc.[25]가 사용한 18문항을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문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문항 당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점수는 총점을 해당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89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도 0.89로 확인되었다.

## 2.3 통계분석

PASW Statistics Ver. 18.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현황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회복탄력성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이변량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별 군집분석은 계층적 분류분석 및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별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Pearson카이제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중 군집별 전공만족도의 차는 최소 기대빈도 2.97보다 작은 셀이 있어서 Pearson카이제곱 대신 Fisher의 정확한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 28.6%, 여학생 71.4%였고 취미가 있는 경우가 63.7%,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58.1%, 좋은 편 32.9%, 나쁜 편 9.0% 순, 성격은 중간 62.3%, 내성적 24.5%, 외향적 13.2% 순, 성적은 중 65.2%, 하 18.0%, 상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동은 하는 경우가 43.5%로 안하는 경우보다 더 적었고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 55.7%, 만족 35.3%, 불만족 9.0% 순으로, 전공만족도는 만족 52.7%, 보통 42.5%, 불만족 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N	%	
sex	male	48	28.6
	female	120	71.4
grade	1	48	28.6
	2	52	31.0
	3	33	19.6
	4	35	20.8
hobby	yes	107	63.7
	no	61	36.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55	32.9
	so so	97	58.1
	bad	15	9.0
personality	introvert	41	24.5
	mid	104	62.3
	extrovert	22	13.2
academic records	good	28	16.8
	mid	109	65.2
	bad	30	18.0
exercise	yes	73	43.5
	no	95	56.5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59	35.3
	so so	93	55.7
	unsatisfied	15	9.0
study satisfaction	satisfied	88	52.7
	so so	71	42.5
	unsatisfied	8	4.8

#### 3.2 회복탄력성,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현황

총 회복탄력성은 평균 5점 만점에 3.45점, 총점 265점 만점에 183.31점이었다. 자기조절능력은 평균 3.32점,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9점, 긍정성은 평균 3.46점으로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 중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대인관계능력 중 자아확장력 3.95점이었고, 반면 가장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긍정성 중 생활만족도 2.98점이었다. 각 세부 영역 내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항목은 자기조절능력 중 원인분석력 3.45점, 대인관계능력 중 자아확장력 3.95점, 긍정성 중 감사하기 3.85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학업소진은 평균 5점 만점에 2.69점이었고 세부 영역별로는 정서적 고갈 2.75점, 무능력감 2.68점, 냉소성 2.6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5점 만점에 2.90점이었다<Table 3>.

#### 3.3 상관관계 분석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학업소진 세부 3개 영역 모두와 음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세부영역 중에서는 무능력감과 가장 높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과는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Table 4>.

#### 3.4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별 군집분류

회복탄력성의 3가지 세부 영역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점수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을 크게 2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5>.

군집1은 62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였고, [Fig. 1]과 같이 회복탄력성의 3가지 세부 영역 모두에서 한국인 평균점수[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집2는 106명으로 전체의 63.1%였고 회복탄력성의 3가지 세부 영역에 대한 점수 모두에서 한국인 평균[5]보다 낮은 군으로 확인되었다. 군집1에서는 3가지 세부 영역 중 대인관계능력 내 자아확장력이 30점 만점에 2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반면 군집2에서는 긍정성 영역 내 생활만족도가 25점 만점에 14점, 30점으로 환산 시 1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가지 세부 영역별로 두 군집 간 점수 차를 살펴보면, 긍정성 영역에서 군집1이 군집2보다 12점 더 높아 두 군집 간 가장 큰 점수 차를 보이는 세부영역으로 확인

되었다. 각 세부영역별 세세부 항목에서는 군집1과 군집 2 간의 차이가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5점 차이가 났으며 긍정성 영역 중 감사하기가 5점 차이로 군집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Table 3> Status of resilience, academic burn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Total	
			Mean±S.D.	Mean of Sum
resilience	self-control ability	emotional control ability	3.28±0.55	19.65±3.32
		impulse control ability	3.25±0.55	19.48±3.33
		causal analysis ability	3.45±0.50	20.70±2.99
		subtotal	3.32±0.41	59.83±7.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3.23±0.55	19.40±3.32
		sympathy ability	3.59±0.46	21.55±2.76
		self-expansion ability	3.95±0.59	23.72±3.54
		subtotal	3.59±0.40	64.68±7.28
	positiveness	self-optimism	3.46±0.55	20.79±3.30
		life satisfaction	2.98±0.64	14.89±3.20
		thankfulness	3.85±0.70	23.13±4.17
		subtotal	3.46±0.49	58.80±8.35
total		3.45±0.36	183.31±19.27	
academic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2.75±0.70	-
	incompetency		2.68±0.57	-
	cynicism		2.62±0.75	-
	total		2.69±0.51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90±0.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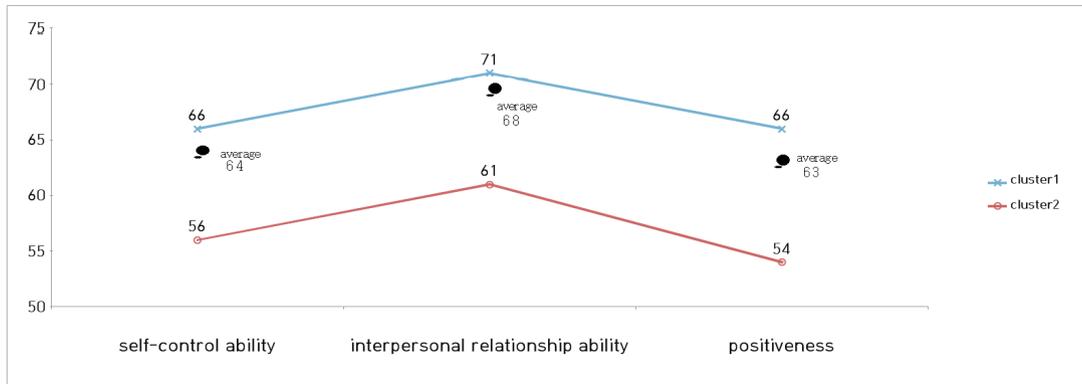
<Table 4> Coefficient of correlation among between resilience and each variable

	1	1-1	1-2	1-3	2	2-1	2-2	2-3	3
1. total resilience	-	-	-	-	-	-	-	-	-
1-1. self-control ability	.80**	-	-	-	-	-	-	-	-
1-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85**	.53**	-	-	-	-	-	-	-
1-3. positiveness	.86**	.51**	.62**	-	-	-	-	-	-
2. total academic burnout	-.58**	-.51**	-.40**	-.53**	-	-	-	-	-
2-1. emotional exhaustion	-.34**	-.31**	-.23**	-.31**	.80**	-	-	-	-
2-2. incompetency	-.51**	-.38**	-.40**	-.50**	.64**	.20*	-	-	-
2-3. cynicism	-.49**	-.49**	-.32**	-.41**	.83**	.55**	.33**	-	-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0**	.29**	.18*	.28**	-.027**	-.022**	-.032**	-0.07	-

\* p<0.05, \*\* p<0.01

<Table 5> Cluster analysis on each category of resilience

		cluster1 (n=62, 36.9%)	cluster2 (n=106, 63.1%)	Total (n=168, 100.0%)	average points of korean
self-control ability	emotional control ability	22	19	30	-
	impulse control ability	22	18	30	-
	causal analysis ability	23	19	30	-
	total	66	56	90	6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22	18	30	-
	sympathy ability	23	20	30	-
	self-expansion ability	26	22	30	-
	total	71	61	90	68
positiveness	self-optimism	23	19	30	-
	life satisfaction	17	14	25	-
	thankfulness	26	21	30	-
	total	66	54	85	63
total resilience		203	170	265	195



[Fig. 1] Cluster analysis on each category of resilience

### 3.5 회복탄력성 군집별 특성의 차이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및 일반적 특성이 회복탄력성 2개 군집에 따라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Table 6>과 같이 분석하였다. 학업소진은 총 학업소진 및 학업소진 세부 영역인 정서적 고갈, 무능력감, 냉소성의 3가지 영역 모두에서 군집1의 점수가 군집 2보다 각각 0.41점, 0.54점, 0.56점씩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고 특히 냉소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진로준비행동에서는 군집1이 3.10점으로 군집 2보다 0.31점 더 높아 군집1이 군집2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성별과 학력은 두 군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미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군집1이 80.6%로 군집2의 53.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인이 느

기는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군집1 46.8%로 군집2의 24.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집1이 21.0%로 군집2의 8.0%보다 높았던 반면,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집1 6.5%, 군집2 35.2%로 군집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집1이 21.0%로 군집2보다 높았던 반면 성격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집1 8.1%, 군집2 23.8%로 군집2가 유의하게 높았다. 운동을 하는 경우는 군집1이 32.3%, 군집2 50.0%로 군집2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군집1 54.1%로 군집2 24.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군집1 71.0%로 군집2의 41.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6> Differences of each variable by resilience cluster

		cluster1 (normal group)	cluster2 (very low group)	t/ $\chi^2$ -value
		n(%) / M±SD	n(%) / M±SD	
academic burnout <sup>1)</sup>	emotional exhaustion	2.49±.766	2.90±.606	-3.541**
	incompetency	2.34±.594	2.88±.458	-6.129***
	cynicism	2.27±.735	2.83±.670	-5.101***
	total	2.38±.535	2.87±.388	-6.94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p>1)</sup>		3.10±.643	2.79±.522	3.486**
Sex <sup>2)</sup>	male	18(29.0)	30(28.3)	0.010
	female	44(71.0)	76(71.7)	
Grade <sup>2)</sup>	1	17(27.4)	31(29.2)	2.826
	2	18(29.0)	34(32.1)	
	3	10(16.1)	23(21.7)	
	4	17(27.4)	18(17.0)	
hobby <sup>2)</sup>	yes	50(80.6)	57(53.8)	12.215***
	no	12(19.4)	49(46.2)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up>2)</sup>	good	29(46.8)	26(24.8)	10.482*
	so so	31(50.0)	66(62.8)	
	bad	2(3.2)	13(12.4)	

personality <sup>2)</sup>	introvert	4(6.5)	37(35.2)	19.386 <sup>***</sup>
	mid	45(72.6)	59(56.2)	
	extrovert	13(21.0)	9(8.0)	
academic records <sup>2)</sup>	good	13(21.0)	15(14.3)	6.908 <sup>*</sup>
	mid	44(71.0)	65(61.9)	
	bad	5(8.1)	25(23.8)	
exercise <sup>2)</sup>	yes	20(32.3)	53(50.0)	5.011 <sup>*</sup>
	no	42(67.7)	53(50.0)	
school life satisfaction <sup>2)</sup>	satisfied	33(54.1)	26(24.5)	17.605 <sup>***</sup>
	so so	27(44.3)	66(62.3)	
	unsatisfied	1(1.6)	14(13.2)	
study satisfaction <sup>3)</sup>	satisfied	44(71.0)	44(41.9)	15.332 <sup>***</sup>
	so so	18(29.0)	53(50.5)	
	unsatisfied	0(0.0)	8(7.6)	

\* p<0.05, \*\* p<0.01, \*\*\* p<0.001

1) independent samples t-test, 2) pearson Chi-square, 3) Fisher's exact test

#### 4. 고찰

연구대상인 의무기록 전공대학생의 총 회복탄력성은 평균 5점 만점에 3.45점, 총점 265점 만점에 183.31점으로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평균 3.37점, 총점 178.72점보다 높은 결과였다[14]. 반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및 치위생전공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의 평균 3.53점, 총점 187.09점, 전공을 구분하지 않은 일반 대학생 대상 평균 3.68점, 한국인의 평균 회복탄력성 점수인 총점 195점보다도 낮은 결과였다[5,23-25]. 총점이 180점 이하라면 사소한 부정적 사건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되고 190점 이하라면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단계인데[5], 190점을 초과한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본 연구대상인 의무기록 전공학생 뿐 아니라 선행연구 상의 간호, 치위생 전공학생까지 보건의료 전공분야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190점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특히, 보건의료분야 학생들에 대해 회복탄력성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 세부 영역별로는 자기조절능력 평균이 3.32점, 총점 59.73점,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9점, 총점 64.68점, 긍정성은 평균 3.46점, 총점 58.80점으로 간호 대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나[15] 한국인 평균 총점인 자기조절능력 64점, 대인관계능력 68점, 긍정성 63점 보다는 세부 영역 모두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5].

학업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2.69점으로 의대생의 학업소진인 2.86점[26]이나 3.30점[4] 보다는 낮은 반면 일반 대학생 대상 2.19점[3] 보다 높았다. 이는 의대생보다는 학습량이 많지 않지만 다른 전공대학생들에 비해서는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학습량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진로준비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2.90점으로 일반 대학생 대상 평균보다 높았으며[24,27,28]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관련 학과 학교 수 및 면허 취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21,22] 취업경쟁이 보다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국가면허 외에도 재학 중에 전산회계, 병원코디네이터 등 복수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업소진 세부 3개 영역 모두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생 대상 선행연구보다 전체 학업소진 및 세부 3개 영역 모두에서 회복탄력성과의 음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2].

회복탄력성의 3개 세부영역 점수에 따라 군집이 2개로 분류되었는데 군집1은 연구대상인 의무기록 전공대학생의 36.9%에 해당하며 3가지 세부 영역에 대한 점수 모두에서 한국인 평균을 약간 넘어 별 문제가 없는 보통 수준의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연구대상 전체의 63.1%를 차지한 군집2는 자기조절능력 총점이 56점, 대인관계능력 총점 61점, 긍정성 총점 54점으로 3가지 세부 영역 점수 모두에서 한국인 평균보다 낮은 군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막연하게 대상 집단 전체에 대한 회복탄력성 노력을 하기 보다는 한국인 평균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 군집2에 대해 개선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조절능력이 63점 이하라면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55점 이하라면 하위 20%에 해당하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대인관계능력이

62점 이하라면 하위 20%에 해당하여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단계이며, 긍정성이 56점 이하라면 한국인의 하위 20%에 해당하여 긍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단계임을 토대로[5] 군집2는 회복탄력성 세부 3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긍정성의 세세부 영역인 생활만족도 점수가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세세부 영역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생활만족도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회복탄력성 2개 군집별로 총 학업소진 점수 및 학업소진 세부 영역인 정서적 고갈, 무능력감, 냉소성의 3가지 영역 모두에서 군집2가 회복탄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1보다 학업소진이 많았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학업소진 간에 음의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으며[8,9,12]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냉소성 영역에서 군집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냉소성 영역의 점수를 높이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이 한국인 평균점수 이상인 군집1은 회복탄력성이 평균점수보다 낮은 군집2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6,10]. 반면 선행연구와 달리 운동을 안 하는 경우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12] 이는 연구 대상 94% 이상이 20대 초반으로 젊은 편이어서 신체운동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평균이상인 군집1에서는 취미를 가진 경우,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 성격이 외향적, 성적이 상위권,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전공에 만족하는 비율이 군집2보다 높았다. 이는 회복탄력성 군집별 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회복탄력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변수들이 군집1과 군집2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사료된다[7,13-20,25].

## 5. 결론

본 연구와 같이 군집분류를 통해 군집 간 비교를 한 결과, 연구 대상 전체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파악했을 때에 비해 회복탄력성 점수가 낮은 군집 및 관련 문제점

파악이 용이하였다.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63.1%가 회복탄력성의 3가지 세부 영역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대한 점수 모두에서 한국인 평균보다 낮은 것이 파악되어 이들에게 집중된 회복탄력성 증대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Kim[5]은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성 강화노력을 우선해야 하고 이 긍정성이 이차적으로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강화시켜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회복탄력성이 낮은 군집2에 속하는 집단에 특화된 긍정적 정서 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부영역에서 군집2가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긍정성 영역 내 생활만족도 항목에 보다 집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군집1이 군집2보다 취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군집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군집2 구성원들에게 취미활동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 마다 학생상담센터, 인성교육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학교생활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팀을 활용하여 긍정성 영역 중에서도 특히, ‘생활만족도’ 영역에 대한 긍정성 강화 및 취미연계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 중재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긍정성 점수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들어 국가고시에서도 사례형 문항이 점차 확대 도입되면서 시험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의무기록 전공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취업경쟁도 보다 치열해 지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소진이 자칫 심해질 수 있는 환경이며 진로준비행동 시기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들 상황에 잘 대처 할 수 있는 정서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회복탄력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의 군집별로 학업소진, 진로준비행동 및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기록 전공 대학생에 대한 관련 첫 연구이며 개선방안 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 세부영역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첫 시도로도 의의가 있다. 다만, 4년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대 학생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문대생들을 포함하여 중재교육프로그램 진행 전·후 회복탄력성

과 관련 변수의 변화 비교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B. M. Bang, S. Y. Lee, J. O. Cheong,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05-213, 2015.
- [2] S. H. Kim, Y. S. Yang, "A Meta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Burnout of nurse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387-400, 2015.
- [3] H. Y. Gao,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1, pp. 125-147, 2012.
- [4] S. H. Lee, S. H. Lee, "Validation of the MBI-SS Scales -based on Medical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4, No. 2, pp. 165-187, 2013.
- [5] J. H. Kim, *Resilience*, Wisdom house Publishing, 2011.
- [6] J. W.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lience'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Chonb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7] K. Ryu, J. K.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Stress,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6, No. 7, pp. 439-450, 2016.
- [8] J. Y. Lee, S. W. Kim, J. E. Hong, S. I. Lee, M. K. Park, J. M. Kim, J. S. Yoon, "The Effects of Affective Empathy and Resilience on Burnout in School Counselors",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Vol. 22, No. 3, pp. 163-172, 2016.
- [9] S. G. Goo, "Salesperson's Resilience and Performance", *Korea distribution association*, pp.51-56, 2016.
- [10] H. J. Yang, I. S. Yeo, D. Y. Won, "Effects of Undergraduate Dance Majors' Mentoring Network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J. of Sports Science*, Vol. 22, No. 5, pp. 1089-1102, 2013.
- [11] M. K. Kim,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205-210, 2016.
- [12] H.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Sahmy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3] J. Y. Lee, *A Study on the Resilience for Military Leader Counselors*. Paicha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4] S. Y. Han, *Resilience, work-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15] J. S. Le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53-260, 2016.
- [16] I. H. Chun, J. Y.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6, No. 1, pp. 49-60, 2016.
- [17] S. H. Park,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Resilience of Prelimin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20, No. 3, pp. 63-83, 2016.
- [18] J. A. Kim,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and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Vol. 25, No. 1, pp.

161-183, 2016.

[19] H. J. Cho, A Study of the Effects of Resilience factor on Flight attendants'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yonggi University, Ph.D. thesis, 2014.

[20] H. J. AN, Y. J. Bae, M. S. Cho, E. H. Kim, Y. O. Cho, Y. L. Lee, J. Ki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Resilience, Mental health on Military Adjustment of Soldiers in the Rear Air For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694-703, 2016.

[21] S. H. Kang, "The Study on Educational System of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Problems and Solutions", The Journal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e, Vol. 10, No. 1, pp. 1-28, 2004.

[22] Korea Medical Record Associati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Competency-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Publishing, pp. 11, 2014.

[23] H. K. Kang, "The effect of some properties of volunteer activities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0, pp. 6688-6697, 2015.

[24] S. B.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Chungb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25] D. S. Son, Y. H. Moo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ilience of social welfare majors in college",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16, pp. 48-69, 2011.

[26] J. H. Yu, S. J. Cha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y Perfectionism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1, No. 1, pp. 88-95, 2016.

[27] J. C. Heo,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discovery program on empowermen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219-228, 2016.

[28] I. H. Jung, B. C.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29] S. J. Lee, Y. Jong.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저자소개

이 현 주(Hyun-Ju Lee)

[평생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9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의무기록, 의료정보, 건강증진